

간호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앞장서야

국제사회 이슈 동참해 간호사 목소리를 내라

ICN 주요사업 보고 및 발전방안 논의

지역권 현행 7개에서 '6개 지역'으로 개편

국제 간호협의회 대표자회의 (ICN CNR)가 5월 25~27일 바르셀로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대표자회의(CNR-Council of National Nursing Association Representatives)에는 ICN 회원국 간호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표자회의는 2년마다 열리며, ICN 현안과제와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한다.

한국 대표로는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김남초 제2부회장, 김미영 감사가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은 각국 간호협의회 대표들과 함께 ICN 현안과제와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15년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던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고류했다.

대표자회의 개회식에서 주디스 새미안 ICN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은 매우 비쁘고, 영향력이 있었으며, 강렬했다”면서 “간호사를 대표하는 가장 큰 글로벌 조직인 ICN 회장으로 일한 시간은 평생에 걸친 특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와 건강을 대변하는 강한

ICN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비전과 목표를 향상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면서 “함께 일하며 지지해준 임원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는 위대한 팀이었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ICN은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위해 계속 변화해야 하며, 유연하고 민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지역화(regionalisation)는 ICN의 중요한 전략이며, 간호협의회들이 서로 강력한 연대를 유지하면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2016년도 주요사업 시행결과에 대해 프랜시스 휴스 ICN 사무총장이 보고했다.

우선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간호사들이 앞장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는 캠페인 ‘Nurses : A Voice To Lead – Achieving the SDGs’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ICN은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로 이 같은 메시지를 세계 간호사들에게 전달했으며, 홍보 사이트(www.icnvoicetolead.com)도

오픈했다. SDGs란 무엇인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간호사들이 활동한 사례, 국제간호사의 날 키트 등이 탑재돼 있다.

또한 ICN 사무국 조직 및 업무 시스템을 개편했다.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강화했으며, 보도자료를 적극 배포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활용해 운영했다. 국제무대에서 간호전문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주력했고, WHO와 긴밀히 협력했다. 변화를 위한 리더십(Leadership for Change)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대표자회의에서는 ICN 사업시행 및 임원선거의 기준이 되는 대륙별 지역권 구분을 기준 7개 지역에서 WHO(세계보건기구)와 같은 6개 지역으로 개편키로 의결했다. 사업시행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선안이다.

6개 지역은 △아프리카 △중동 △유럽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이며, 한국은 서태평양지역에 속한다. 새로운 6개 지역 기준은 2021년 임원선거



ICN 대표자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가운데), 김남초 제2부회장(왼쪽), 김미영 감사(오른쪽).

때부터 적용된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새 회원국으로 브라질간호협회(재가입) 및 폐루간호협회(신입)를 받아들이기로 승인했다. 레비는 간호협회와 중국간호협회가 혁신상을 받았다. 대표자들은 세계간호학생대회 개최 결과를 학생대표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는 임원선거를 통해 아네트 케네디 회장을 비롯한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 (관계기사 2면에)

또한 ‘난민–건강, 사회적, 경제적 권리’ 주제로 정책포럼이 열렸다. 국제이주기구(IOM) 윌리엄 스윙(William Swing) 사무총장이 초청돼 특강을 했으며,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주노동자와 난민들

(MRDPs·Migrants,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의 건강과 안전은 인권의 문제이며, 각국 간호협회와 간호사들이 관심과 책임을 갖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주노동자와 난민들은 가장 취약한 인구계층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문제가 심각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약이 있다.

간호사는 이들의 건강과 사회적 요구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며,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한편 차기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 개최지는 2019년은 싱가포르, 2021년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결정됐다.

정규숙 기자 [kscung@koreanuse.or.kr](mailto:kscung@koreanurse.or.kr)

차기 회의 개최지 확정

2019년 싱가포르 … 2021년 아부다비



대표자회의는 ICN 주요사업 시행결과를 보고 받고, 현안과제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4년마다 새 임원진을 뽑는 선거를 한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정책포럼을 통해 난민의 건강과 안전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다시 보기

세계 간호사들 “최고의 대회로 기억” 한목소리

메르스 뛰어 넘어 세계 간호사 하나된 감동

한국 간호의 조직력과 리더십 잘 보여줘

지금부터 2년 전, 대한간호협회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를 개최했다.

‘글로벌 시민, 글로벌 간호(Global Citizen, Global Nursing)’ 주제 아래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한 대표자회의(CNR)가 2015년 6월 17~19일, 세계 간호사들이 간호교육·연구·실무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한 학술대회가 6월 19~23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세계 간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한국 간호역사의 새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대회로 기록됐다. 대한간호협회의 조직력과 리더십을 세계에 보여

주고, 한국 간호의 위상과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인 멋진 대회로 남았다.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2년이 지난 후에도 세계 간호리더들은 그 때의 감동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2017 국제간호협의회 대표자회의(ICN CNR)에서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가 정말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기억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대한간호협회가 고생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었던 조직위 위원들과 전국의 간호사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표자회의에 이어 열린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국 간호사들은 “ICN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던 국가 입장에서 올해 스페인을 지켜보는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2015년 당시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한

간호협회를 세웠던 행사였다”

대표자회의에서 만난 주디스 새미안 ICN 회장은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는 메르스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된 행사였다”

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대표자회의를 하는 동안 각국의 대표들로부터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가 정말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기억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대한간호협회가 고생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었던 조직위 위원들과 전국의 간호사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표자회의에 이어 열린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국 간호사들은 “ICN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던 국가 입장에서 올해 스페인을 지켜보는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2015년 당시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고유 민족의 차림으로 입장하는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마음이 돼 정말 잘해냈었다는 생각이 들어 뭉클했다”고 말했다.

〈대회 유치〉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09년 우리나라가 ICN 정회원국으로 기입한 지 60년, ICN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Congress)를 서울에서 개최한 지 20년이 된 것을 기념해 2015 ICN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Conference)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 타이완, 태국,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페루, 크로아티아 등 7개 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후보지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현지실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ICN 이사회에서 만장 일치로 서울이 개최지로 2010년 5월 14일 확정됐다.

간호협회는 유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민관의 준비를 했다.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마케팅, 주제네비 한국대표부 등 법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줬다.

〈조직위원회 출범〉 대한간호협회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대회를 준비했으며, 조직 위원장은 대회 유치 당시 대한간호협회장인 신경립 회장이 맡았다.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조직위원회를 단기 재단법인으로 설립해 승인을 받았다. 재단법인 이사장은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맡았으며, 간호협회 종합회장인 신경립 회장이 맡았으며, 간호협회 중앙회 임원들이 재단법인 임원으로 들어왔다.

조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2~3명의 공동위원장이 임명됐으며, 위원들이 위촉됐다.

〈개회식〉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개회식은 130여개국에서 1만3000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자리한 가운데 6월 19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개회식에서는 각국 간호협회 대표단이 고유 민족의 차림으로 입장하는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

기관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한 고(故) 마거릿 에드먼즈 간호사에게 대한민국 훈장이 추서됐다. 에드먼즈의 증손자인 러셀과 카일이 참석해 훈장 및 훈장증을 받았다.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 개회식에 앞서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한 대표자회의가 개최됐다.

세계 간호사들이 간호교육·연구·실무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한 학술대회를 통해 간호의 창조적 비전과 혁신방안을 공유하고, 리더십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이와 함께 세계간호학생대회, 개발도상국 간호지도자와 학생들을 초청한 대한간호협회 국제협력 프로젝트, 대한간호협회 흥보관 및 한국 간호역사 사진전, 간호사 유니폼 및 한복 패션쇼가 열렸다. 간호사신문 특별판이 매일 발행됐다. 사전 흥보활동으로 간호영화제가 열렸으며, 기념우표가 발행됐고, 공식 기념품이 출시됐다.

주혜진·정규숙 기자